

나는 완벽이 아니라
조각이 되고 싶다.

잡문집

雜 文 集

KIM CHUL

잡문집

雜 文 集

차례

01	가을비는 가을에만 내린다	3
02	요사이 그 누구도 오고 감 없는 집이 있다	4
03	태어날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7
04	논픽션non-fiction은 사실 [사실자체]가 아니다	11
05	식힐 열기 없는 때에 내리는 비	14
06	사람살이 다툼이다	15
07	그냥 그대로 두면은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21
08	인연을 따라 살되 인연에 휩쓸리지 말자	22
09	가을에는 잎들에 채색하고	24
10	몇 년째 돈 안 되는 일을 하며 산다	25
11	어떤 동네 이야기이다	33
12	중환자실에 가족들이 병상 주위에 모여 있다	42
13	여유는 성급함 없는 족함이다	52
14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 우표를 모았다	53
15	있는 그대로가 더 나은 것들이 있음을 알고	58
16	우연偶然은 소멸 일보 직전이다	59
17	진실이 거짓에게 물었다	63

가을비는 가을에만 내린다
가을에 내려서만이 아니다

색 노란 증경¹ 녹 빛 앞들
그들도 떨어져 내리고 있다

가을은 곡穀²주고 길 갈 뿐
가을fall에 낙fall하는 건 앞들

작일昨日³과 내일來日 사이
금일今日에 지금只今⁴ 여기

떨어지고 있는 것들과 함께
비 제 길 찾아 감에 가을비

1 증경曾經: 았증: 일찍이, 한때. 經경: 겪다, 지나다, 거치다→일찍이 겪은 적이 있다. 전에 이미 경험했다.

2 곡: 곡식.

3 작일: 오늘의 바로 전날. 어제.

4 지금: 말하고 있는 바로 이때.

요사이 그 누구도 오고 감 없는 집이 있다.
 집이 싫어서도 주인집이 싫어서도 아니다.
 집에 오기 쉽지 않다. 사는 이가 쉽지 않다.

요즈음 대다수 대부분 편하게 오감往來하고
 쉽사리 오감五感 가능한 장소와 관계에 산다.

집은 아는 이들과 거리로 아주 멀리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주인들의 얌-방식이 멀다. 외관상
 고립으로, 인정人情상 단절로 보인다. 허나 여기 이렇게
 사는 자만이 오감往來 없이도 육감六感The Sixth sense⁵
 각覺 있는 sensate 친밀함real intimacy을 체험한다.

5 육감: 「일상적 표현」 분석적 이성이 아닌 직관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의학」 귀속 전정기관의 평형 감각.

진정으로 오가지 않고 다른 연유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가까워질 수 없는, 여기로 안 오는 이들이 기실 고립이고
단절의 존재들이다.

감정-편의라는 자아본능과 도덕-도리라는 체면유지의
교묘한 콜라주⁶. 내겐 멀다. 어렵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진행자의 멘트: ‘오후만 있는 멋진
하루. 주말 하루만이라도 이런 날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오십 초. 이제 오후만 있는 인생이다. 내 육신이
노후老朽⁷해 가고 있다.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제 고인이
된 개그맨 전유성 씨가 일전에 한 말이다: ‘최고의 장수
비결은 나이를 제일 많이 먹는 것이다.’ ironic & witty.

노후老後⁸ = 자금+대책+상품+가입+혜택+정책. 모두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상 살림살이로의
경제economy(eco:집+nomy:규준, 관리) 차원이 아닌
금전(money)에 대한 걱정, 근심, 불안, 불만에 대한 대비,
바로 그 공식.

6 「미술」 화면에 인쇄물, 천, 쇠붙이, 나뭇잎 등 여러 가지 물건을 붙여서 구성하는 기법.
광고나 포스터.

7 노후하다: (시설이나 장비가) 오래되고 낡아서 제구실을 할 수 없다.

8 노후: 늙은 후.

자고 일어났더니 11시. 폭 잤다. 험한 꿈 몇 개가
잠깐씩 괴롭혔던 것 외에는 기억도 안 난다. 지금은
오후 2시 12분. 지금이 나의 자금⁹. 잠잘 때까지 별반
다를 일 없을 것이다.

9 자금資金capital: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돈. 밀천이 되는 돈. Capital:[L]caput(head)→
머리, 수도, 지도자, 건물 기둥 윗부분, 머릿수(head of cattle→자산)

태어날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친구로 평생을 지냈던 노인 셋이 여행을 하게 되었다. 서로 돌아가며 운전을 하니 전국 이곳저곳을 다녀도 노년의 몸임에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8일간의 여행 일정이었다. 일정표와 숙소, 식사할 곳 등의 계획은 두씨頭氏 할배가 도맡았다. 심씨心氏 할배와 육씨肉氏 할배가 납득할 만한 충기가 있는 적임자였다. 두씨 할배는 늘 생각했다. 생각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떤 일에도 생각이 있었다.

8일 동안 함께 있어야 했다. 대화도 나누고, 차 안에서 노래도 하고, 웃고, 옛 추억에 눈물도 흘리고, 세상 이야기, 아는 사람들 이야기도 나누었다. 심씨 할배가 없이는 불가능했다.

심씨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을 쓰는 사람이었다. 생각보다 마음, 몸보다 마음. 마음 중심.

생각 속에서 생각을 만들기 바쁜 두씨 할배는 주로 침묵에 집중했다. 육씨는 밖에서는 움직이고 다니고 신고 내리고 차 안에서는 주로 간식을 먹다 조는 식이었다.

심씨 할배는 이들이 교감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자기 마음을 그들에게 써 주었다.

8일 동안 계속 이동해야 했다. 육씨는 늘 제일 먼저 일어나고 챙기고 옮기고 차 상태를 점검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정리하고 잠자리를 살피고 제일 먼저 잠들었다.

감각적이고 즉각적이고 여행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영화 주인공처럼 자고 눈 뜨면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알고 있는 것이 없다. 이어지는 생각이나 품고 있는 기억이 없다.

8일 동안 여행을 다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나누고 먹고 경험하였다. 이후 두씨는 여행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며 다음 생각으로 여행을 떠났다. 생각에 잠겨 살았다.

심씨는 느끼고 기억하고 웃고 눈물짓기도 하며 앞으로의 여행을 꿈꾸며 소망하는 감정에 잠겨 살았다.

육씨 할배는 여행 후에도 8일간의 두 친구와의 여행에서처럼 몸을 움직이며 몸으로 일하고 몸에 따라 살아갔다. 똑같지만 늘 새로운 순간을 체험하며 몸을 던져 살았다.

세 할배는 80여 년 생을 향유하다 죽음을 맞이했다. 두씨는 자신의 생각들을 정리해 글을 남기고 소멸했다. 심씨는 자신이 느껴왔던 마음의 기쁨, 슬픔, 두려움, 걱정, 근심, 희열, 고통, 아픔, 온갖 감정을 노래와 그림으로 남기고 사라졌다.

육씨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삶과 죽음에 대한 그 어떤 지식도 기억도 없었다. 단지 죽음까지도 새로운 경험으로 체험했을 뿐, 남긴 것 하나 없이 관 속에 놓였다.

그런데 세 할배 중에 육씨만 뭔가 지니고 있었다. 왼손에는 두씨의 책 한 권이 오른손에는 심씨의 악보와 화첩이 놓아져 있었다.

몸은 생각도 마음도 못 하는 듯했다. 그러나 목숨은 몸에 붙어 있었다. 몸은 생명작용을 하며 매일 매 순간의 제 삶을 살體驗했다. 생각과 마음은 체험하며 사는 몸의 손길에 연결된 정신과 의식이었다.

직접 쓴 다산 정약용 자신의 묘비문이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의미 있는
경험(살體驗음:삶)이었다.’

논픽션non-fiction은 사실 [사실자체]가 아니다. 누군가
 혹은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사실로 수용되고
 인정되는 [사건기억]이다.

몸소 직접 경험했던, 책이나 영상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던 공통의 분모는 파블라fabula이다.

파블라fabula는 사건이 실제 일어난 시간 순서대로
 배열된 이야기이다. 논픽션은 사실자체가 아니다.

경험자들과 동시대인들 그리고 이후 세대의 체험-기억,
 기록-전승의 파블라fabula식식 이야기이다. 꾸며낸
 이야기fiction은 아니지만, 기록으로 이어온 이야기이다.

논픽션은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단절적이다. 선과 악,
 흑과 백, 찬과 반, 이리와 해害, 우리와 저들로 나눈다.

첫原 사실은 점차 믿음과 전통으로 사실화된다.

거대 대륙을 관통하며 끝없이 이어지는 관개수로의
물처럼 관 안에서 흐르고 또 흐른다. 그 옆으로도
수다數多한 관들이 또 다른 사실들로 설정되어 있다.

나에게는 논픽션도 픽션도 아닌 현실을 창조해야만
한다는 내 존재를 장악한 [싫음liking]이 있다.

내가 살體驗고 있는 세상사, ‘사실fact은 절대
진실true이고 사실적인 것pseudo-fact은 거짓false이다!’
최종 판결하기에는 모순투성이이다. 픽션은 전체의
대부분, 논픽션은 전체 중 일부분이 지어낸fabricated
사실들로 사실화되어 있다.

하여 나는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파블라fabula 식에서
슈제트sujet 방식으로. 풀어 말하자면 주체인 내가 존재-
삶, 생활-관계를 주체적으로 재구성하고 배열한
이야기를 사실의 구조로 획정할¹⁰ 것이다.

실재하는 것들과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정사실로 보지
않는다. 그것들은 나에게 푸티지footage들이다. 편집
전의 이미지나 영상, 사건과 현상들이다.

10 획정劃定하다: (사람이나 기관이 어떤 범위나 경계 따위를) 명확히 구별하여 정하다.

나는 나의 성정性情에 마련된 한 땀plot 구상-각색,
설계-편집의 작업실에서 푸티지들로 나의 이야기를
만든다plot. 처음原來 사실과 사건들이라는 낱것들의
재해석과 재배치.

관 속에 흐르는 물이 아닌 관 밖. 지금 여기 이렇게
샘솟고, 폭포수로 떨어지고, 강으로 바다 향해 흐르고,
시내로 졸졸거리는 사실로서의 물. 이종항변異種恒變.

내 두 손 그릇만큼 한두 번 물을 포착한다. 그만큼만
마신다. 그리고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내 몸으로 이해하고
파악하고 재해석하고 배열하는 식이다.

그리고 [지금-여기-이렇게]의 현재를 현실과 사실로
지어낸다. 이 순간을 이야기 창작자로 주인공의 삶을
사실감 있게 생생하게 산다.

식힐 열기 없는 때에
내리는 비

해갈할 갈증 없는 때에
부르는 비

바람 없이 홀로 된 때에
나리는 비

가을비에게 물었다:
‘지금 뭐러 내려요?’
가을비가 답했다:
‘비라 내려요 지금’

가을비도 물었다:
‘내가 내려 좋아요?’
가을비에 답했다:
‘좋아요! 내게 와줘서!’

사람살이 다툼이다. 시간을 다투며 산다. 순위를 다투며 산다. 자리를 두고 다툼다. 책임을 다투며 탓을 한다. 승패를 다툼다. 인기를 다툼다.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것들은 그냥 공췌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를 얻기 위해 자기 삶터에서 싸우듯 서로 경쟁한다. 개인, 사회, 회사, 지역, 기관, 국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경쟁이다. 태어날 때마저도 먼저 나가는 형의 발꿈치를 잡아챈다. 야곱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그러했다. 전장이나 중환자실에서도 살기 위해 다툼다. 생사를.

법과 규율을 범했을 때 제재와 벌을 받는다. 그러나 지구에서 고등동물인 인간으로 살體驗다 보니 법-규율뿐 아니라 도의-양심 밖에서 언행하는 이들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다만 다툼은 늘 있다. 동식물 모두.

준법-위법 선상에서 요리조리 비위非違¹¹ 직전까지에서
법망에 걸리지 않는 이들서부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량한 필부필부匹夫匹婦¹²까지 동일하게 삶을 다투며
살고 있다. ‘서로 싸우며 산다’가 아니다. ‘생활生活을
다투며爭奪¹³ 산다’이다.

어제 저녁 식당에서 다툼이 있었다. 옆 테이블 네 명의
30대 초반의 남자 어른들이 있었다. 우리가 식사하고
있는 식당으로 2차인지 3차인지로 온 것이다.

그날따라 생기 넘치는 대학생들의 축제와 꽤나 수준 있는
무대와 음악 그리고 거리 음식들 연기와 냄새로 식당
주위는 야외 파티장 같았다. 식당 주인도 평소 아는
사이이고 해서 한 시간 정도 참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었던 터였다.

나중에 알았지만 넷이 동네 불알동무였다. 넷 중 둘이
언성을 높이더니 서로 싸움이 붙었다. 주인, 직원들,
손님들 모두 놀랐다. 왜냐하면 잔을 바닥에 던지고 서로
치고받을 태세로 고성 발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1 비위: 법에 위반되는 것. 또는 그런 일.

12 필부필부: 평범한 남녀.

13 「爭奪쟁탈」: [다투다]의 중국어 회화 표현.

가만 보다가 밥을 다시 먹었다. 그러다 내가 바로 오른쪽 테이블 그 학생들 보러 온 어른이들 보고 ‘그 둘 이리로 와’라고 두 번 정중하게 손짓하며 말했다. 등을 보이고 있었던 두 친구는 몸을 돌려 같은 상에 앉아 있는 듯 나를 바라봤다.

오라고 하는데 오질 않았다. 그중 형님이라고 하는 또 그중 유일하게 그렇게 보이는 듄직한 사내가 ‘소리를 내서 미안하다’고 했다. ‘식사하는데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 주면 서로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우선 그렇게 다시 나누어졌다.

그 둘은 계속 싸웠다. 손님들은 갈까 말까 하는 듯 계속 먹었다. 그러다가 내가 빈 테이블로 갔다. 거기 혼자 앉아 그 둘 하나씩 이리로 오라고 했다. ‘지금 감정이 아니라 여기 모두가 이토록 불편해하고 불안해하고 있는데 경찰에 신고할 범죄까지는 아니라 주인도 이도 저도 못 하고 있다.’

‘이후 생활 불편해지는 일 없게 신체타격이나 도구사용 말고 팔씨름으로 나랑 하자’고 말했다. 그리고 있는데 그중 청새치같이 생긴 청년이 왔다. 다툼이 시작됐다. 싸움이 아닌 다툼.

용을 쓰고 힘을 아무리 써도 내가 내 쪽으로 끌었다
나주었다 캐나다 살 때 바다낚시할 때처럼 했다.

첫판. 그렇게 결판났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막판 하고
싶지 않았다. 해서 ‘더 힘 줘. 힘 줘. 이겨. 더 힘써!’
상대에게 담담히 그러나 당당히 재촉했다.

그러니까 확실히 달라졌다. 힘이 강하게 느껴지고
기운도 만만치 않게 되었다. 그래도 동일하게 해 주었다.
둘째 판 종료. 그때부터는 정말 모두가 말했듯이 영화의
장면처럼 진행되었다.

갑자기 뒤통을 벗었다. 반팔보다는 길지만 손등서부터
팔뚝으로 이어지는 문신을 보고 있었는데 다 벗으니
야쿠자 문신이 온몸이었다. 여백의 미가 전혀 없었다.
기고만장해졌다. 영화배우 보는 줄 알았다. 두 눈알을
위로 미친 듯이 올리더니 흰자로 나를 내리깔며 보았다.
정말 글 쓰는 지금처럼 평안했다.

내가 힘 더 쓰라고 했을 때 삼세판으로 계속하라고
했었는데 기꺼이 협조를 한 것이다.

나도 벗으면 어떨까 했는데 근육은 나올 수 있지만
몸뚱이 사이즈가 청새치와 고등어라 남방 단추 하나만
풀다가 멈췄다. 그리고 붙었다. 마지막 판. 다시 더 졌다.
난 다이조부.

그렇게 되고 실랑이가 잠시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없이
그쪽 형님이 자기 동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에게
놀림당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다. 나는
존중까지는 아니지만 나 자체가 모욕되는 것을 거부하고
그 누구도 물색없이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고 했다.

이해했다 하며 다시 한번 죄송하게 됐다는 말을 남기고
다들 데리고 나갔다. 동무들끼리 밖에서 뭐라 또 하더니
귀가했다. 그 둘의 다툼도 나와 불알동무 사인조와의
다툼도 그렇게 끝났다. 이후 한 시간 정도 머물며 다툼
없이 대화하며 서로 챙기며 즐겁게 식사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다는 [남들 싸움]. 身體體驗다 보면
가끔 직간접으로 구경꾼이 되어 接體驗하게 된다. 그런데
구경하는 순간마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다툼 속에
있다. 마치 대기권 안에서 호흡하며 살고 있듯이.

소소한 말싸움이든, 욕설 대화이든, 몸싸움이든, 법적 소송이든, 심리적 미묘한 갈등이든, 스포츠에서의 경쟁이든, 국가 간 전쟁이든 모두 [다툼]이라는 최상위-개념-뒷박¹⁴에 평미래¹⁵ 없이도 쏙 다 담기는 것들이다. 늘 시비是非right or wrong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이다. 누가 자신만 옳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공자 선생도 말씀하지 않았는가? ‘군자는 화합하되 같지 않고, 소인은 같으나 화합하지 않는다.’ 군자는 그 존재의 질과 품이 크고 넓고 깊지만, [같지 않음의 다툼]을 하며 살게 된다. 군인群人和 중인衆人은 서로 다른 것이 없지만, 절대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버리지 않는다. 타인과 [나를 위한 싸움]을 하며 산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생활을 다투며 산다. 요하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떠한 [다툼]을 하며 살아가겠는가이다. [유익하고 필요한 다툼] 아님 [무익하고 불필요한 다툼]. [나의 다툼]은 무쟁無爭도 투쟁鬭爭도 아니다.

14 뒷박: 쌀의 분량을 헤아리는 데 쓰이는, 한 되 분량의 쌀을 담을 수 있는 그릇.

15 평미래: 말이나 되에 곡식을 담고 그 위를 평평하게 밀어 고르게 하는 데 쓰이는 기구.

그냥 그대로 두면은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젓가락 숟가락 보자기 같이 그냥 원래 그대로

조금 바꾸면 조금은 더 나은 것들이 있습니다
젓가락 끝, 숟가락 머리, 보자기 천. 조금씩만

꽤나 바꾸면 상당히 더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옥 젓가락, 금 숟가락, 비단 보자기. 오브제化

제때 맞추면 제대로 더 값진 것들이 있습니다
국수에 젓가락, 국에 숟가락, 쌀 것에 보자기

점차 바꾸면 참으로 더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젓가락 놓고, 숟가락 놓고, 일용할 양식 내고

매일 그대로 두면은 더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순수한 필요들을 감싼 보자기와 일용할 수저

인연을 따라 살되 인연에 휩쓸리지 말자.

인연을 짓고 살되 인연을 조작하지 말자.

인연의 귀함 알되 인연에 집착하지 말자.

무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나의 존재는 그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 누구의 필요도 되고 싶지 않다.

[사랑의 헌신give&receive]과 상호 필요에 의한
[주고받음give&take]은 전혀 다르다. 전자는
활인活人적이고 후자는 소모적wasting이다.

누군가를 진심과 신령으로 좋아하고 싶다. 그런 존재와
둘로 하나일 수 있으니까. 또한 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가 필요하다면 필요하다고 고백할 의향도 있다.
동일한 이유에서.

나 그대로, 그 그대로 함께 웃고 울고, 말하고
듣고, 먹고 마시며, 서로 섞임으로 각자 더 높고 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청수淸水와 같은 복에 겨운 인연을 따라 흘러왔다.
시절마다 잊을 수 없는 인연을 새기며 살아왔다.
주어지고 뺏어진 인연을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며
지내왔다. 적어도 나로서는.

그러나 이제는 시절이 바뀐 정도가 아니라, 본토 친척
고향집을 떠나 새로운 시대에 진즉 들어와 살고 있다.
이제는 휩쓸리지 않아야, 공작하지 말아야, 당연시하지
말아야 한다. 내 삶體驗의 존귀한 인연들을.

사내장부丈夫, 언제라도 독수리 두 날개 치듯
창공으로 날아올라 천지와 우주와도 인연 삼을
기상과 기개와 기품으로 단 일회로 남은 날들을 나의
귀인貴人 삼아 맞아들일 것이다.

가을에는 잎들에 채색하고
초봄에는 새싹에 초록하고
한봄에는 꽃잎에 형형하고
여름에는 꽃나무 색색하고
만추에는 칠대신 낙엽붉고
겨울에는 온세상 한색해요
계절마다 저마다 색칠해요

몇 년째 돈 안 되는 일을 하며 산다. 그런데 모르기는
 몰라도 돈 되는 일을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보다
 부요해지고 있음을 자인自認한다. 일상이 매일-매주-
 매달-매해 나의 공간空間으로 점점 윤택해지고 있다.
 안락·자유·자율.

[무약無約-무순無順-무규無規], [싫음liking-
 반복repetition-슈제트sujet/syuzhet]의 생활 원리原理가
 나의 중요中要¹⁶이다. ‘배부른 소리 한다’ 소리
 들어도 어쩔 수 없다. 돈벌이 행위는 중요重要하다.
 허나 내 중심일 수는 없다. 고난은 있었지만
 고민할 것은 없었다.

귀천 없는 직업, 어디에든 몸담고 돈 벌면서 살기
 위해서는 약속과 순서와 규칙 속에 있어야 한다.

16 중요: [글쓴이] 주로 사용되는 ‘~이 중요하다’의 중요重要가 아닌, [핵심]이라는 의미로의 中要.

지키든 요령을 피든 그 줄에 묶여 있는 상태는 동일하다.
과거·현재·미래의 철로에서 행복여 이탈하면 인생
크게 탈난다不幸.

자신의 성정性情에서 나오는 싶음liking(애호, 취향,
상태)의 역동, 시간 부자임에 실현 가능한 자기 싶음의
반복과 이를 통한 자기 파악·형성·확장의 변화, 슈제트
방식方式, 과거로 가서 푸티지footage들(과거 사건, 감정,
물건, 장소, 관계, 경험들의 원판原板/원자료)을 지금
이리로 가져와 오늘이라는 ‘막just now간날과 막올날’
두 줄기의 어름¹⁷에서 작업한다.

구성하고 재배치하고 편집하고 배열해 본다.
그러면 확정이 아닌 변동, 균일함이 아닌 들쭉날쭉,
순서order가 아닌 공정process, 사실事實이 아닌
살기體驗로 갈피를 잡는다.

[서울→부산행] 기차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그와
딱 반대이기 때문에.

17 어름: 두 사물의 끝이 맞닿는 자리. 구역과 구역의 경계점. 일정한 테두리나 범위의 안,
또는 그 가까이 어떠한 때.

때로 정차하지 않고, 수시로 부산 대신 다른 곳으로
행로를 변경하는 기차가 있다면 필시 안드로메다행
은하철도 999이다. 기차는 확정·순서·경로대로.

현재現在가 출석해 있는present 오늘과 만나서 함께
현실을 만드工作는 것이 나의 생명·생활·생각 방식이다.
기억하지 않는다. 적극적 망각active oblivion. 과거로
둔다. 과거를 방대한 자료의 도서관 정도로 둔다.

또한 기대하지 않는다. 소극적 전망passive prospect.
미래는 가치가 없다. 오늘에 지금 막 도착한 것일 때만
살體驗용用 가치가 있다. 내가 여가與價¹⁸하지 않은
미래는 없다. 미래를 초저평가한다. 내 미래는 거의 없다.

기억의 원판들, 기차 각 칸(輻:량)들이 무수히 많다 한들
기차 여행으로서의 오늘 하루는 그저 한 칸 아니 한 칸의
한 자리이다. 가끔 다른 곳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먹기도 하고 화장실도 다녀오고 감상에 젖기도 하고
스마트폰도 한다. 여하간 기차와 같이 간다. 관성의
세계로 들어와 살고 있는 것이다.

18 여가: 가치를 부여하다.

그곳에 타고 있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도 한다.
실제로 가는 동안 좋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좋은
소식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종착역인 ‘묘지역’에 ‘자기 존재’ 아닌
‘열차 통째’로 운반되어 있을 것이다. 시간의 기차는
단순·안정·다수·확정·인정이라는 철로에 굳게 붙어
있기 때문에 거의 아무 문제없다(?) 여겨 많은 이들이
타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기차 여행자가 아니다. 어디도 가지
않고 고정된 목석木石도 아니다. 오늘을 여행하고
탐험하고 오늘에 머문다.

오늘은 ‘나-존재’가 현전現傳하고¹⁹ 또한 현전現前²⁰하는
유일한 [타이밍-스페이스timing-space]이다. 내가 선택·
선별한 여러 원판footage들을 동시에 배치·배열함으로써
나의 삶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이 오늘이다.

우주는 그 어떤 시대, 종족, 연령, 문화의 인간에게도
편향偏向이고 편광偏光이며 편파偏頗이다.

19 현전하다: (과거에 이루어진 것이) 현재까지 전해 내려오다.

20 현전現前: 앞에 나타나 있음. 아주 가까운 장래, 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

절대란 절대로 실재하지 않는다. 만약 누구에게 혹은 어떤 집단에게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그이나 그들을 상대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상황에서일 뿐이다.

전인적wholly이고 전체적wholistic일 수 없어 모든 면에서in every aspect 어느 쪽으로든 치우쳐 있는 상태로 생존 경쟁을 하는 생명체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무지無知의 지知, 소크라테스 정도 되는 현자들의 깨달음이다.

기독교에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함은 ‘건강한whole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막2:17).’에 대한 그의 역할을 뜻함이다.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롬3:10).’라 했다.

과학 실험에서 편광판 두 개를 각각 가로 세로로 포개면 유리처럼 투명했던 판이 흑판이 된다. 반대편이 안 보인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똑같은 편광판을 대각 방향으로 끼워 놓으면 다시 뒤쪽이 보인다. 빛이 통과하게 된다.

편향된 것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문제이지 모든 이들의 의식 상태이다. 의사가 병자에게 필요하다 했지만 병자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낫고자cured하는 마음이 있는가?’ 38년 동안 앉아만 있었던 중풍병자에게 건넬 수 있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렇게 질문했다.

완전무결의 완벽完璧flawless jade²¹. 그리로 方向한 추구함은 좋다. 그러나 일편一便²² 기차가 여정 내내 추구함이 종착역인 것처럼, 완벽을 추구하거나 요구하는 자는 생전에는 절대로 그게 무엇인지 알지 못할 것이다.

편광, 편향, 편파가 인간 속내의 초기 설정값default setting/value이다. 나는 완벽이 아니라 조각이 되고 싶다. 편광판을 이리저리 나의 존재와 삶, 그 사이에 매일같이 끼워 넣어 보는 실험을 하며 살고 싶다.

21 완벽: 흠이 없는 옥구슬. 결점이 없이 완전함을 이르는 말.

22 일편: 어느 하나의 편이나 방향.

나는 원판 릴footage reel²³에서 오늘 나의 싶음과 상황에 부합하는 필름 조각들을 선택하고, 선별하고, 잘라 내어 박진迫眞한²⁴ 콜라주collage를 만들고 싶다. 재구성되어 깨어 있는 존재와 생생한 현실을 살體驗고 싶다.

큐레이터curator 하면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떠오른다. Curate는 무수無數하고 다양多樣한 소장품들 중에서 프로젝트 주제에 따라 선별, 배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어원이 흥미롭다. 라틴어 동사 Curatus는 어근이 Curare로 ‘돌보다, 보살피다’이다. care도 여기서 파생되었다. 영어로 되면서 교구 목사pastor가 되었다.

근대에 진입하면서 Curate는 전시품을 돌보는 사람, 관리인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었다. 이후 전시품을 선별하고, 관리하고, 배치하다의 동사動詞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현대에 들어서는 자료를 골라서 편집·배치하는 작업을 뜻한다.

편偏하여 늘 치우쳐 기울어 있고, 편便하여 용쓰며 한쪽만 들고 있다.

23 Reel: 틀에 감은 필름. 「영화」 권쵸 《보통 1권은 1,000ft 또는 2,000ft》

24 박진하다: (표현 따위가) 진실에 접근하여 현실감이 있다.

나는 신神적 완벽divine holiness이 아닌
전인적wholly이고 전체적인wholistic 존재human
being으로 매일 매 순간 거듭나고 싶다. 할 수만 있거든.

이를 위해 나는 나를 돌보고care 치유해야cure 한다.
이 한두 가지 사유를 가지고 현재 이곳에 걸맞은 하나의
큐레이트curate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그리고는
원판들을 가져와 작업하여 오늘을 치료하고 살려내야
한다. 일어나 걷고 뛰고 찬탄하며 사體驗는 명작의
존재로. 금과 은으로는 어림도 없다.

어떤 동네 이야기이다. 같은 성씨姓氏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集姓村인 이곳에는 성씨(Last name)가
케어Care인 이들이 대대로 살고 있다.

Dr. Care는 이 동네에서 명망名望이 높은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50대 초반임에도 노인들까지 그를 ‘케어
박사님’이라 존칭한다.

이전에는 대학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 후로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때때로 다른 마을들에서 강연 초청을 받으면 순회
강의를 다닌다.

유명한 한 사람이 또 있는데 Mr. Care이다. Dr. Care와
동창인데 학창 시절 내내 공부도 케어 박사보다
잘했고 멀리 유학도 다녀온 학자였다. 그러다
교구목사curatus가 되었다.

케어 씨는 어린 시절부터 학문, 체육, 예술에 남다른 소질이 있었다. 동네 학부모들에게 전도유망²⁵한 아이로 인정받으며 성장했다. 그 후 오랜 유학 생활 끝에 동네로 돌아와 교구목사로 임직했다. 자연스럽게 Dr. Care에게는 비할 수 없는 존중과 인정을 받고 있었다.

그러다 8년 전에 성직자의 직을 내려놓았다. 그 후로는 더 이상 학자도 종교인도 아닌 그냥 동네 아저씨로 산다. 다만 학문과 예술, 종교와 철학, 수행과 흥락²⁶을 제 일상이라는 밭에 심고 키우고 가꾸면서 좋아하는 이와 함께 날마다 깊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

다만 이제는 누구도 케어 씨를 볼 수 없다.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니 케어 박사가 동네 최고의 저명인사가 되었다. 케어 씨는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이해, 인정, 인기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실상 Dr. Care는 늘 걱정, 근심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자기 가족들, 친구들, 주변 아는 이들 모두 그렇게 살고 있다.

25 전도유망前途有望: 앞으로 발전하고 성공할 가능성과 희망이 있음.

26 흥락: 흥에 겨워 즐거워함.

케어 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동네 사람이면 예외 없이
그런 상태로 살고 있다. 이런 연유로 거의 모든 동네
주민들이 케어 박사에게 한 달에 적어도 한 번은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고 있는 것이다.

Dr. Care는 정신과 의사로서 자기 동민洞民이 수 대째
걱정·근심 노이로제(신경증)로 고통받고 있는지
그 원인을 알고 있다. 그 이유를 아는 이상 사실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이 마을 주민의 동민성洞民性이
[걱정·근심질質]이기 때문이다.

무슬림이든 유대인이든 그들의 시조始祖가 아브라함인
것처럼, 이 동네 사람들 역시 시조가 되는 조상이 있는데
이름이 카루Caru이다. 당시 그의 성姓은
츄우즈Choose였다.

아브라함Abraham은 ‘많은 사람들 곧 열국列國의
아버지’이다. 카루Caru라는 이름은
‘슬픔sorrow과 불안anxiety’이다.

카루 츠우즈는 오랜 수행 끝에 인생은 고통의 계속이고
죽음이 그 끝임을 파악하²⁷고 한 인간 존재로서
슬픔과 불안에 사로잡혔다²⁸be seized with. 슬픔과
불안이 존재의 중심을 찬탈했다²⁹seized.

카루의 도반道伴³⁰이었던 붓다Buddha 역시 같은
고행苦行 중에 있었다. 그러나 더한 험로險路라도 거기서
더 나아가기로 선택한다choose.

결국 깨달음의 경지로 넘어갔다. 그러나 카루는
거기까지를 선택했다. 카루는 몸속에 돌덩이가
이식移植된 것처럼 만성 걱정과 범사 근심에 잡혀
살게 되었다.

남은 삶을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다 보니 슬픔과 불안이
그의 기질氣質frame of mind이 되었다. 붓다처럼 슬픔과
불안이 소멸된 강 너머로 건너가지는 못했지만, 카루
츠우즈는 죽는 날까지 자신과 마찬가지로 슬픔과
불안으로 고통하며 살고 있는 두 아들을 보살피 주고,
돌보아 주었다. 늘 곁에서 신경을 썼다.

27 〈의미·요점 등을〉 파악하다, 납득하다, 이해하다.

28 [수동형으로] 〈공포·병 등이〉 〈사람을〉 덮치다, 엄습하다, 사로잡다.

29 〈권력·주권 등을〉 빼앗다, 강탈하다, 나포하다, 찬탈하다.

30 「불교」 함께 불도를 닦는 벗. 반려伴侶, 짝, 곁. 單單 짝.

카루 츠우즈Caru Choose 사후死後, 두 아들은 자신들의 성씨인 츠우즈Choose를 버리고 고인이 생애 후반에 제 이름名 속에서 발견하여 사용했었던 돌봄care의 카루caru와 보살핌cure의 카루caru를 자신들의 성씨로 선택하고 각기 자신의 길을 택하여 떠났다.

세월이 흘러감에 Care 성씨족姓氏族과 Cure씨 부족이 형성되게 되었다. 케어 박사는 예전 친구였던 케어 목사curatus가 교구민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의사로서 동네민들을 곁에서 살피고 치료하고 있다.

동네 치리자治理者들이 복지 정치를 구호로 여러 정책을 실시하며 주민들을 돌보아 준다. 동민건강보험이 효율적으로 실행되어 병원은 헬스 케어health care로 동민들의 건강을 돌보며 치료해 준다. 아이들과 청년들, 성향소수자들과 소외된 이들을 돌보아 준다.

현재 케어 성씨촌 마을은 돌봄caring을 강같이 흐르게 하는 복지福祉³¹의 복지福地³²이다. 그런데 여전히 케어 박사를 포함해 거의 모든 동네 주민들이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31 복지: 좋은 건강, 윤택한 생활, 안락한 환경들이 어우러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

32 복지: 행복을 누리며 살 만한 땅.

슬픔sorrow과 불안anxiety은 제거되었다. 그렇게 슬퍼할 일도 그렇게 슬퍼하는 이도, 그렇게 불안한 이도, 그렇게 불안해하는 이도 이 동네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일까?’

케어 박사는 진심으로 궁금했다. 가게의 내력을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스스로 설명할 수 없었다.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현상이었다. 자신이 이해 못 하는 또 하나. 잊힌 옛 친구 케어 씨를 생각해 보았다. 동네 경계 끝에서 그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 그 자.

케어 박사는 그를 찾아갔다. 꼬박 4시간이 걸렸다. 팔 년 만이다. 산과 계곡에 둘러싸인 곳에 집이 있었다. 하늘 아래 바위땅 위 산천초목이 집과 함께 하나 되어 있었다. 집 진입로에서 들어오면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잊게 만드는 묘한 분위기에 사로잡혔다.

자신을 맞이하는 친구와 함께 가볍게 악수를 나누고 집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붉은 소나무들, 돌덩이 산의 단면, 한쪽 크게 차지하고 있는 낱알이 조각난 편석더미. 앉아 있으면 벽체만 한 유리창으로 보이는 정경情景³³이다.

세련되고 독특한 모양의 잔과 접시에 담긴 갓 내린 커피와 얼마 전 오븐에서 구워져 나온 컵케이크와 스콘이 케어 박사 앞에 차려졌다. 잠시 인사말과 안부 대화가 오고 갔다.

케어 박사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아찔했다. 해서 정중히 그러나 중간은 일절 생략하고 자신의 속내를 질문조로 말했다. 케어 씨는 잠시 침묵하며 요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돈했다.

우선 조금 시간을 요하는 주제이니 커피와 빵을 먹으며 들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다:

‘친구. 슬픔과 불안이 없어졌다고 걱정과 근심도 같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돌보고 보살피고caring 치료cure를 해 주었다고 나아지는recovered 것도 아니지. 준다고give 또 받는다고take/receive 호전되는 건 아니야.

33 정경: 마음에 끌리는 경치.

쥐고grasp(give와 같은 어원[OE]gifan잡다, 쥐다)

있는 것이 없으면 쥐도 그다음 일어나는 일은 없어.

돌봄을 주건give 보살핌을 주든 준다는 것은 우선 손에 쥐고(give의 어원적 의미) 있는 것이 있어야 해.

풀어 말하자면 자기 마음속 안으로

잡고take([OE]tacan잡다, 취하다_안으로 향하는 동작)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지. 다음 제 것을

제 손으로 상대방에게 내보내 주는give 것이지. 이렇게 하면
평안과 평화가 생겨나. 회복recover(re:다시

+cover:capere잡다_다시 잡다/되찾다)이 일어난 것이지.

시쳇말³⁴로 마냥 퍼 주어도 자신이 잡고 있는 자신의 것을
내어 주는 것이 아니고 ‘내게 없는 것’이나 ‘내 것 아닌 것’
을 주고 있다면, 주는 이나 받는 이나 상호 간에 걱정과
근심cares 속에서 수수授受³⁵ 행위들을 경험하는
것뿐이야. 단언컨대 회복은 절대로 안 일어나.

34 시쳇말: 時體+말. 그 시대에 널리 유행하는 말.

35 수수: 돈이나 물건을 서로 주고받음.

받아도received(re:뒤로, 되돌아+capere잡다, 취하다
_take back:누가 보낸send 것을 다시 잡는다) 받은 것을
잡아들이기take만 하고 보낸 이sender/giver를
제 진심眞心으로 받아주지 않으면 이때 역시 걱정과
근심cares은 바위처럼 미동 없이 거기 있을 거야.

이제껏 내가 한 말은 내 생각일 뿐이야. 그러니
논지論旨³⁶만 파악seize하고 이 말에 잡히지는be seized
with 말았으면 해. 다만 마지막으로 전해 주고 싶은
말이 있어:

우리 케어성姓 씨족성氏族性이 [걱정·근심질質]이잖아.
물론 성향은 유전적으로나 풍토와 풍습을 통해 형성되고
주어지는given 것이기는 해. 그러나 인간의 성정性情은
한 개인이 매 순간 선택할choose 수 있는 존재로
회복시켜 줘. 난 이걸message 전한 사람sender일
뿐이야. 이해·수용이 된다면 Mes·sen·ger가 되어 줘요.
먼 곳까지 와 주고give 긴 이야기 들어줘서give 고마워요
친구! 잘 가요!’

36 논지: 주장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

중환자실에 가족들이 병상 주위에 모여 있다.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환자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로 의사가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얼마 후 신부님이 들어와 환자 머리맡에 십자가상³⁷과 촛대, 성수그릇을 놓았다. 환자 손에 묵주를 쥐어 주고 노자성체³⁸를 집례했다. 환자감시장치 모니터에 심전도 신호가 멈춰 평평한 직선이 되었다. 임종 기도를 하고 신부님도 함께 있었던 가족들 중 일부도 병실을 떠났다.

밖으로 나간 유족들은 망자의 장례 절차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병실에 남은 두 명 중 하나는 계속 울며 감정을 추스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37 십자가상十字苦像: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수난을 그린 그림이나 새긴 형상.

38 노자성체: 임종 시 영성체하는 것으로, 죽음을 앞둔 신자에게 예수의 몸을 모시는 의식.

9분 뒤였다. 정확히 8분 59초. 맥이 끊긴 지 9분 만에 환자가 눈을 떴다. 사망 사실을 알리고 있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랐다. 점차 조용히 흐느끼고 있다가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나사로 사건이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바로 코앞에서.

믿기 어렵다는 말은 생각하기도 어려웠다. 사람들이 다시 하나둘 병실로 들어오고 잠시 후에는 의사와 스태프들이 들어왔다. 다 들어왔다.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기 위해서였다. 두 눈으로 그리고 의학적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망자가 이제 다시 환자가 되어 입을 열었다. 어눌하고 느리고 죽다 산 사람 모습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다. 상태에 대해 물으면 대답하고, 상황에 대해 이것저것 질문하기도 했다.

몇 시간이 그렇게 흐르고 의식과 호흡을 되찾은 환자는 주위 가족들에게 자신이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고 했다. 처음 몇 번은 그러셨냐며 하다가 계속 그 말만 하니까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한 기적의 환희는 사라지고 의심과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직 정신이 온전치 못하신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마음이 편했었다. 그런데 ‘정신에 이상이 생기거나 정신이 나간 건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다음 날 병실에 찾아온 의사에게 사실대로 말했다.

의사는 자신도 평생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환자가 소위 말하는 임사체험near-death experience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은 종교인도 영적인 사람도 아니지만 의학자로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며 가족들의 동의를 구했다.

일요일 미사 후 환자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들은 신부는 자신도 그 인터뷰 과정에 참여해도 되겠냐는 의사를 표했다.

환자가 의사와 신부에게 들려준 그만의 경험 이야기이다:

‘천국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어요. 정말 실망이 컸어요. 이런 곳이 천국인 줄 생전에 알 수 있다면 누가 오려고 할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입은 옷 왼쪽 가슴에
죄수번호를 붙이고 있었어요. 면류관은 아니어도
금배지badge는 아니어도... 죄수번호표가
뭐예요 도대체!

그래도 온 김에 거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 볼까 해서
사실 몇 명과 대화를 해 보기는 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두 분! 특히 신부님!

모두 진짜 죄인들이었어요. 생전에. 모두가. 하나같이.
범죄 경력이 있었어요. 그네들의 인종도 다르고 살던
시대와 나라가 다 다르긴 했는데, 어쨌면 모두가 그때
그곳의 국법과 가법家法, 종교법과 율법 중 뭐라도 하나
이상씩은 위반한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보지 못했었는데, 마지막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죄수번호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번호가 원체 두드러지게 크고 진해서 그랬는지 번호표
중앙에 붉은 선이 세 줄 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 천국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죄수번호표를
달고 있었어요. 두 줄이나 세 줄.

그래서 앞에 있는 그이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 천국에 걸맞지 않게 죄수번호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만 있고, 또 그 번호표에 붉은 삼선은 뭐냐고. 생기 품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듣다 보니 알게 되었어요.

사실 천국 사람들 죄수번호표는 그들이 자기가 지은 죄를 죽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든 진정으로 인정했었던 자백自白confession 횃수였던 거였어요. 여기 신부님도 계시지만 횃수는 아무 수나 괜찮아요. 범죄 횃수가 아니에요. 자백한 수를 죄수번호표에 적어 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들어보니 붉은 세 줄은 그들이 살아 있었을 때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했던 사람들의 수예요. 용서받은 수가 백 번 천 번이라도, 심지어 일흔 번씩 일곱 번 남들을 용서한 것도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용서하고 받은 횃수가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 그들에게 진심의 용서를 허락했던 사람이 평생 두세 사람이면 용서받은 죄인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참 기묘하고 기이해요.

이제 지옥 이야기를 해 볼게요. 지옥은 우선 죄수번호표? 뭐 이런 것이 없어서 좋았어요. 신부님이 여기 계시지만, 이해하고 들어 주세요. 타오르는 유황불이나 죽지 못해 영원한 극한 고통에 울부짖는 소리 같은 것은 없었어요.

엄밀히 관찰 비교해 본 결과 지옥 구성원들을 놓고 보자면 천국보다는 딱 봐도 예의 있고 교양이 있어 보이는 이들이 훨씬 많았어요.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지옥은 펄펄 끓는 기름에 튀겨도 튀겨도 불사不死 새 된 인간 망종亡種들이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사람들 모두 두 손 중 한 손이 몸에 용접되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체형이 제각각 다른 모양으로 조금씩 뒤틀려 있었어요. 주로는 입이나 눈, 귀나 가슴 쪽이었지요. 그리고들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천국에서 경험한 바가 있으니 그곳에서도 몇 명에게 대화를 요청했어요. 모두 이야기 시작 전에 남은 한 손으로 악수부터 청하더군요. 역시 이곳에서도 듣다 보니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지옥에서는 두 손 중에 한 손만 벌을 받는구나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용접으로 몸에 붙여버린 손은 그들이
생전에 선행을 했던 몸의 지체를 위해 주는 지옥
방식의 구원이었어요.

지옥을 안 보고 못 느끼고 안 들리게 해서 그곳만큼은
지옥을 직접 살體驗지 않도록 해 준 거예요. 손에게는
곤욕이지만 어차피 지옥인데 몸의 한 부분이라도 지옥에
없는 것처럼 해 준 조치였어요.

지옥 사람들이 생전에 덕행을 아무리 많이 했고 사랑을
실천한다 하며 선을 실천했어도 이들이 지옥에 온 연유는
오직 하나 때문이에요.

[용서하지 않음]

온갖 아름답고 덕스러운 선행을 베풀며 살았었다 해도
그 선행은 정도와 횃수의 차이이지 천국이나 지옥이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처음 지옥에 와서는
나같이 살아온 사람이 지옥? 말 자체가 안 된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한 손이 제일 많이 의를 행한 몸의 부분에 붙고
나서부터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했어요.

살아 있을 때 선한 일을 하려 했었을 때 그때 그 순간마다 마음을 내어 전해 줄 뿐 행실을 보여 주고 내세우지 않았어야 했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된대요.

그래서 선행을 주로 자주 때마다 하며, 일생 자백할 특별한 죄도 없다 스스로 여기게 되었었고 속마음이 자아로 굳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신이 선인善人이기에 자아ego가 세워지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온갖 좋은 일 행함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자아自我가 활약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 간의 내밀한 심령의 주고받음 곧 용서는 불가不可시켜 불가능不可能하게 된 존재로 살았던 거였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 계시지만, 영어를 좀 사용해 본다면, 용서forgive는 for가 up 즉 완전히(drink up), 멀리(away)의 원어적 의미이고 give는 고대 영어[OE]로 giefan이라는 잡고 쥔 것을 건네는 뜻으로 시작된 말이지요. 용서는 내 손과 마음에서 원망을 멀리 던져 내게서 완전히 없는 것으로 만드는 사랑으로만 가능한 행위이자 사랑 그 자체이지요.

정도와 상황의 차이이지 남들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내세우려는 마음 곧 자아ego가 진짜 사랑authentic
love에 융접되어 가려졌을 때 그래서 작동 못 할 때,
용서가 가능하지요.

임사체험 때문이든 죽다 살아나 뒤늦게 깨달음을
얻어서이든 아니면 죽어가는 과정에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보게 되었든 이제 제가 다녀왔던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분명 지옥에는 단 한 명도 무명진실無名眞實로 용서하지
않았던 유명다수의 영웅·의인들이 많이 있었고 천국에는
부지불식간不知不識間³⁹ 심령으로 용서를 건네받은
죄인들이 많았어요.

지옥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과 선행 위에 타인의 잘못과
과실로 배가倍加⁴⁰되는 선함과 의義의 벽돌로
자아탐을 쌓느라 인생 전부를 소진한 사람들이었어요.
생기·활기라고는 조금도 없이 그저 마땅히 해야 할
말들만 했어요.

39 부지불식간: [사전의 두 번째 의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 [글쓴이] 자신이 모를 정도의
진심으로.

40 배가: 갑절로 늘어남. 또는 그렇게 늘림.

이에 반해 천국의 사람들은 부족함과 그릇 행함을
시인confession할 때 그들을 용서해 준 두세 사람의 자아
파괴의 죽한 사랑으로 용서된 죄인들이예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죽어서 잠시 그러나 분명히
살體驗았던 이야기는요.

그런데 혹시 두 분은 어디서 살고 있나요? 어디로 가리라
예상이 되시는가 여쭙 봐야 할까? 아닙니다.
농이 좀 과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두 분도 그러실 테고 저도 좀 쉬어야겠습니다.
가시기 전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신부가 성경을 펴더니 읽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마6:14-15). 이것으로 제가 드릴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의사는 자신은 종교적이거나 영적이지
않다 하며 다만 환자의 이야기를 임상체험 연구
자료로 사용해도 되겠냐고 물었다. 괜찮다 하니 악수를
청했다. 끝

여유는 성급함 없는 족함이다
 여유는 남김이 있어 너그럽다
 여유는 心 넉넉하고 느긋하다
 여유가 없으면 뭐든 잘 안 된다

여지는 빈틈이나 빈자리이다
 여지는 현실화할 가능성이다
 여지는 생각을 더할 기회이다
 여지가 없을 땐 말할 필요도 없다

여백은 내용무無의 공란이다
 여백은 대중 없는 치유이다
 여백은 그대로 잠자코 이다
 여백이 없으면 사랑 자랄 곳 없다

초등학교를 다닐 적에 우표를 모았다. 처음에는 무슨 선물용 통이었던 것 같은데... 그 속에 낱장으로 담아 두었다. 그러다가 점점 우표 전문가 아저씨들의 집이나 가게에 드나들면서 전용 보관 앨범과 핀셋, 몇 가지 사이즈의 비닐 커버를 갖추었다. 우표 수집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외국에 많이 다니셨던 아버지께서 방문했던 곳의 우표를 사다 주셨다. 한국 우표도 오랜 역사가 있는 것들부터 외국 대통령 방한 기념 우표까지 구색을 맞추어 소장하게 되었다. 심지어 북한 우표들까지 손에 넣어 우표첩에 꽂아 두었다.

지금 기억으로는 3년 정도 되었을 때 우표상자 3개 앨범 5개 소장한 꼬마 우표 수집가가 되어 있었다. 때로는 우표를 팔기도 하였다.

그렇게 지내는 중 한 분의 말씀이 여전히 기억에 생생하다. 우표 수집 취미가 더 질 높고 속 깊은 소장·애장으로 변형되는 계기였다. 셀 수도 없는 우표들을 우표앨범 딱 3개로 만들었다. 종이가 붙어 있는 것들 대부분은 버리고, 그 외는 주기도 또 팔기도 했다. 시내 백화점 지하 한 패기 자리, 우표·화폐 가게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주인이었다.

그토록 열정을 가지고 3년을 한결같이 우표를 수집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꼬마에게 해 주었던 말이다: ‘너 이제 우표 엄청 많지. 이제 다 줄여. 네가 제일 많이 보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기분 좋고 뭐 그런 것들 말고는 아쌀하게⁴¹ 다 없애. 그래야 우표 더미가 아니라 애장⁴²품 모음집이 되는 거야.’

애장품 모음집. 내게는 참 신선한 단어였다. 수많은 것들 중에서 내게 소중한 것들을 선별選別해서 앨범이라는 형식으로 간직하는 선집選集⁴³. 모음 자체에서 주체적 모음으로 혁신.

41 아쌀하게: 제주도 방언에서 유래된 비속어. 화끈하고 깨끗하게. 지체 없이 빠르고 시원하게.

42 애장愛藏: 소중히 여겨 간직함.

43 선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의 작품 중 몇 가지를 추려 모은 책.

그 당시 어머니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플로리스트이셨다. 그때는 꽃꽂이 사범이라고 했다. 작품 전시회도 하셨다. 집에서 한 주에 한 번 여러 종류의 꽃들과 잎들을 침봉에 꽂아 수반에 담아 내셨다. 그리고는 LP 플레이어로 클래식 음악을 틀어 놓고 고요히 감상하셨다.

그런데 어머니의 꽃꽂이에 관련해 내가 분명히 아는 사실 하나가 있다. 어머니는 신문지에 들들 싸여 있던 꽃들과 잎줄기들을 풀어 놓고 한동안 가만 쳐다보셨다. 그러다 수반들 몇 개를 또 바라보셨다. 수반을 고르신다.

그리고 나서야 검은색 꽃꽂이 가위를 들고 다듬고 자르고 해서 침봉에 하나씩 하나씩 꽂아 높낮이와 각도를 맞추셨다. 또 바라본다. 그리고 다시 빼서 밑동을 조금 자르고 다른 곳에 다른 각도로 꽂는다. 또 바라보고 또 꽂고.

어머니의 꽃꽂이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여백을 통해 꽃과 잎들을 되살려내는 작업이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애쓰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모이는 것이 있다. 나이age. 나이가 모인다. 주로 수치화하는데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매해 하나씩 모여든다. 살아온 시간의 양도 증가한다.
그러나 나이가 많다고 반드시 지혜가 보장되지 않는다
(욥32:9). 質質.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죽음의 때가 사람마다
다를진대 동일한 것은 그때가 언제든 그때와 오늘 사이의
남은 날 수數와 생명의 양量은 작아지고 줄어든다.
나이가 모아질수록 생명앨범의 장수는 줄어든다.

우표 모을 만큼 모았으면 애정할 만큼의 것들만 선별하여
우표 선집을 향유하는 존재로 성숙해야 한다. 꽃들이
있을 만큼 제 앞에 놓여 있다면 없는 꽃이나 수반을
생각할 것 없이 어떻게 구성하여 美의 형태로 구현해
낼까 하는 즐거운 궁리를 누리는 존재로 올라서야 한다.
수數와 가치는 오히려 반비례한다.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면 그 세월에 매일같이 수와 양만
더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나날이 단순하고 단아하고 단단하게,
견실하고 견고하고 건강하게, 담백하고 담담하고
담대하게 선별한 한두 가지 사유와 두세 가지 방식으로
구현된 일상선집日常選集이 되게끔 해야 한다.

나의 삶이 일회찰나一回刹那일지라도 나로서
충만해지기에는 나에게에는 충분한 기간이다. 나의
성정性情에 담겨 있는 싶음liking(애호, 취향, 상태)을
앨범 삼고 침봉 삼는다. 그러고는 내가 직접 선별하고
모으고 꽃아 살體驗아낸
[작품선집anthology([Gk]anthos:꽃+lego:모으다→
꽃다발)]을 엮는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을 나와 나의 곁들의 [작은 숲
(bouquet의 어원_작은 숲bosquet에서 유래_나뭇가지를
묶은 모양→꽃다발)]으로 조림造林⁴⁴하여 떠날 때에
사랑으로 살려 하는 이들에게 부케bouquet로 던져
주려 한다.

44 조림: 나무를 심거나 씨를 뿌리거나 하는 따위의 인위적인 방법으로 숲을 조성함.

있는 그대로가 더 나은 것들이 있음을 알고
있는 그대로로 더 계속 두려는 디자인 작업

내가 상상하는 느낌을 종이에 글로 그림으로
심령의 자궁 안 굵적굵적들을 낳는 산고産苦

함유된 마음과 뜻 없이 시쳇말로 죽은 언어들
아무것도 아닌 말로 무엇인가를 말하며 산다

이케바나生け花, 뿌리 위 꽃·잎·줄기를 꺾는다
계절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 선과 여백의 소재

뿌리째 뽑고 거기 또다시 심는 이가 있나?
뽑았으면 팔든 주든 먹든 하고 다시 파종한다

가을과 겨울엔 씨앗은 차고 딱딱한 땅과 격리
곧 씨앗은 땅이 온기 품고 흙내 뿜는 것을 봄

우연偶然은 소멸 일보 직전이다. 일과 사건이 원인과 결과 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우연이다. 영어로는 Accident이다. 라틴어 어원 accido(발생하다, 떨어지다, 우연히 일어나다)에서 파생, 발전된 단어이다. ad-(~에)와 cadere(떨어지다, fall)의 결합으로 뜻은 ‘우연히 어떤 일이 떨어져 일어남’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에는 일정한 원인과 조건이 반드시 있다는 불교의 중심 교리 연기론緣起論은 종교를 떠나 시대와 현대인들의 정신 중심이다. 사람들이 말로는 대박의 우연을 바란다고 하지만, 그 순간도 당연히 인정되는 원인과 결과의 체제에서 행위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우연을 바라는 것이지 우연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과학과 지성의 첨단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신과 무지계無知界에 있는 이들까지 모두 그러하다.

다들 알고들 있듯이 벼락 맞아 죽을 확률보다 확률이 더 낮다는 로또 당첨도, 만에 하나 당첨되기 위해서는 로또를 구입해야 한다. 당첨을 바라는 것이지 전적 우연은 인정 안 한다.

일하고, 먹고, 마시고, 살고, 투자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참고, 즐기고, 출퇴근하고, 여행을 떠나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고… 모두 우연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우연을 꿈꿔 보기는 하지만, 우연을 신뢰하거나 기대어 살지는 않는다.

나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른다. 다만 과학적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모태로부터 출생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생물학적으로 원인은 부모이다. 그리고 나는 결과이다.

큰 나무들이 글 쓰는 이곳에서 수도 없이 보인다. 모두 한 알의 씨앗이 거기 떨어져서 시간을 따라 저리 높고 굽게 자라난 것이다. 원인은 씨앗이고 결과는 나무이다.

그런데 나라고는 도저히 인정이 안 되는 온갖 물질과 세포들 즉 나 아닌 것들로 이루어진 나를 볼 때 이것은 분명 우연이다accident. 오래전 어느 시점에 씨가 저기 돌산 바로 저 자리에 떨어진 것은 우연이다.

거의 모든 생명체들의 경우와 같이 인간도 생식 본능과 행위로 종족을 보존한다. 과학적으로 사실이 그렇다. 분명한 원인과 조건과 결과가 있다.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어떤 아이를 낳을지는 우연에 맡길 뿐이다. 순산과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바라고 기도할 뿐이다.

우연히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은 우연과 함께 발생하고 진행되고 결과된다. 아이의 입장에서 왜 자신의 부모라 하는 특정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났는지 알 길이 없다. 우연이다. 우연으로 원하는 바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실제 발생하지 않는다. 우연 ≠ 바람. 우연은 또 다른 우주와 생명의 원리이다.

최근 들어 나는 이렇게 우연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우연을 바라지 않는다. 바라본다.

우연이 인과로 필연으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실상이
매일 매 순간 내 눈에 포착된다.

우연한 만남, 우연한 대박, 우연한 치료, 우연한 이득,
우연한 번창, 우연한 형통, 우연한 해결을 하나같이
마음에 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 삶을 형성하고 있는
주재료로 인정하는 바라봄의 정신까지 밀고 나아간
사람은 거의 없다. 믿고-가고, 하고-되고, 심고-얻고,
가고-오고, 주고-받고, 쓰고-읽고, 찍고-보고. 이런
식이 바로 이 시대가 보고 인정하는 인과의 원리이다.
믿음과 교리에도 생각과 행위에도 심고 거둬에도 오고往
감來에도 임신과 출생에도 설계와 생산에도 만남과
이별에도 삶과 죽음에도 매일의 일상에도 우연은
실재實在하고 작동作動하고 있음을 나는 안다. 우연이
분명히 보인다. 가서 와서 보시게들from there to here
come and see! 자신의 반half이 인과因果인 우연.
신뢰함에 진정한 평화가 마음에 든다.

진실이 거짓에게 물었다. ‘너는 왜 진실되지 못하니?’
 거짓, ‘나도 거짓만큼은 거짓 없어!’

선이 악에게 물었다. ‘너는 왜 그리 선하지 못하니?’ 악,
 ‘내가 악이어야 널 걸?’

행복이 불행에게 물었다. ‘너는 왜 그리 불행만 하니?’
 불행, ‘너하고 늘 같이 있으니까!’

젊음이 늙음에게 물었다. ‘너는 어찌다 그렇게 늙었니?’
 늙음, ‘너처럼 살아서 이렇게 됐어!’

성공이 실패에게 물었다. ‘넌 참 안됐다. 뭐든 안 돼서!’
 실패, ‘넌 참 잘됐어. 안 되다가!’

기쁨이 슬픔에게 물었다. ‘너는 왜 슬퍼만 하고 있니?’
 슬픔, ‘난 괜찮아. 너만 할 순 없어.’

사랑이 사랑에게 물었다. ‘난 어째서 사랑만 하고 있지?’
 자답自答, ‘나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우연을 바라지 않는다.

바라본다.

사랑이 사랑에게 물었다.

‘난 어째서 사랑만 하고 있지?’

자답自答,

‘나는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잡문집

雜 文 集